



'제25회 담양 대나무축제'가 내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죽녹원과 종합체육관,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빛나라 빛나, 대나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나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풀어낸다.



사진제공=담양군청

담양대나무축제, 천년 대숲에 빛 담는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제25회 담양 대나무축제'가 내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죽녹원과 종합체육관, 담빛음악당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빛나라 빛나, 대나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나무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풀어낸다.

특히 이번 축제는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죽녹원 봉황루의 화려한 조명 연출과 관방천 수상 조명 등 축제장 전역을 빛

로 수놓아 낮보다 아름다운 담양의 밤을 선사한다.

오후 9시까지 문을 여는 죽녹원에서는 대숲 야경을 배경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대숲 영화관'을 처음 운영해 방문객에게 이색적인 추억을 선물한다.

불거리도 풍성하게 갖췄다.

개막식에서는 담양의 새로운 관광 캐릭터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브랜드 선포식을 진행하며, 행사장 곳곳에 캐릭터 팝업스토어와 사진 찍는 곳을 마련해 활력

내달 1~5일 죽녹원 일원서 개최...야간 콘텐츠 강화 '동행축제'로 소상공인 판로 확대·지역상품권 환급

을 더한다. 아울러 축제 기간 운도현 밴드와 남진, 알리, 황민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뮤지컬과 드론 제작 체험, 전국 스피드 드론 경진대회 등 미래형 콘텐츠를 배치했다. 또 대나무 땃목 타기, 물총 만들기 등 대나무를 주제로 한 역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진다.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노력도 잊지 않았다. 축제 기간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료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 읍내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동행축제'로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돕고, 향토음식관을 운영해 지역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현재 전시·체험, 음식·디저트, 농특산물 판매 부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위생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 안전관리

계획 심의와 현장 점검을 마치고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올해 축제는 낮보다 빛나는 야간경관과 다채로운 체험·공연 콘텐츠를 바탕으로, 유형 축제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며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담양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서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자연의 신비 '화순적벽 버스투어' 내달 2일부터 달린다

사전 예약제 도입...관람 시간 확대·요금 동결

(재)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내달 2일부터 '2026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버스투어는 적벽 상시 개방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이용 편의성과 현장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운영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이며,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간 운행된다. 모든 탑승은 이서커뮤니티센터

(이서면 소재)에서 이뤄진다.

특히 재단은 혼잡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0%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장 예매는 불가능하며, 이용객은 반드시 화순적벽 버스투어 누리집을 통해 탑승일 기준 2주전부터 2일전까지 예약해야 한다.

개인 예약은 1인당 최대 4명까지 가능하며, 30인 이상의 단체는 하루 1팀에 한

해 별도 예약제로 운영된다. 단체 이용은 재단 관광기획 마케팅팀(061-373-5482)을 통해 사전 문의 및 예약을 거쳐야 한다.

올해 투어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투어 시간을 기존보다 확대된 1시간 45분으로 운영된다. 또한 해설사가 버스에 동승하지 않고 적벽 내부에 상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관람객이 자유롭게 관람하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 요금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1인 5000원을 유지한다. 운영 횟수는 시기별 탄력적으로 조정해 5월 성수기에는 하루 4회, 6월부터 8월까지의 하루 2회 운행할 예정이다.

구종현 대표이사는 "단체 관람을 넘어 관광객이 주도적으로 적벽의 비경을 즐길 수 있도록 자유 관람과 현장 해설을 결합했다"면서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반드시 사전 예약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화순적벽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함평군이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축제 현장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나섰다. 사진제공=함평군청

함평, 나비대축제 현장 점검 '총력'

준비 최종 확인...관람객 편의·안전 최우선

함평군이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축제 현장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나섰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의 함평군수, 강하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현장 회의를 최근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24일 개막을 앞두고 축제 준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축제장의 주요 전시관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간, 관광객 동선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시설 배치와 운영 계획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안전 관리 체계와 대응 방안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관람객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내체계와 휴식 공간, 교통 동선 등 현장 운영 요소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함평=최윤희 기자 6263739@gwangnam.co.kr

영광, 첫 모내기 풍년 농사 '출발'

내달 중순 본격 이앙...현장 기술지원 등 추진

영광군은 최근 올해 첫 모내기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8일 군남면 용암리에서 이뤄진 모내기는 지난해보다 이앙기량 늘게 진행했다. 벼 이앙은 5월 중순 1모작을 시작으로 6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약 9000ha 면에서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약 60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조생종 벼 '조명1호'는 4월 하순에 이앙해 9월 초 수확이 가능한 품종이다.

이 품종은 대풍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벼 도복으로 인한 수확비용 증가와 수량 감소, 미질 저하 등의 문제 예방에 탁월하다.

또 추석 전 햅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농민이 노동력 분산에도 효과가 있다.

정재욱 영광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한 농가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진행한 모습. 사진제공=영광군청

나주의 봄, TV 속으로... '1박 2일' 관광홍보전

구 나주역 등 주요 명소 배경, 26일부터 2회 방송

봄기운이 가득한 나주의 풍경이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시청자의 안방을 찾아간다. 전남 나주시는 인기 예능 '1박 2일'과 손잡고 지역의 관광 자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촬영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시 전역에서 이뤄졌다. 출연진은 나주의 역사적 상징인 구 나주역을 시작으로 노란 물결이 장관인 영산강 유채꽃밭, 이국적인 분위기의 전라남도 산림연구원 메타세쿼이아길 등 주요 거점을 돌며 다채로운 체험을 마쳤다.

특히 이번 방송은 단순한 명소 소개를 넘어, 나주만의 전통과 미식, 생활 문화를 부각, 야간 고운의 영향으로 양분 축적이 저하되면서 종자 충실도가 떨어져 올해 정부보급종과 자가재종 종자의 발아율이 예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발아율 저하에 대비한 사전 무료검사와 현장 기술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육묘부터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풍년 농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것이 시의 전라이다. 봄빛이 만개한 영산강 변의 수려한 경관은 영상미를 극대화해 나주가 지닌 천혜의 자연조건을 부각할 전망이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방송 매체를 통해 나주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산과 풍부한 먹거리가 널리 전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나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의 매력을 담은 이번 방영분은 KBS 2TV를 통해 오는 26일과 5월 3일 오후 6시 10분에 두 차례에 걸쳐 전파를 탄다.

나주=신영식 기자 cult@gjdream.com

해남, 신규 공중보건의 보건기관 배치

4명 배정 포함 10명 근무

해남군은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사 4명(치과 1, 한의과 3)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북부 만료자 대비 전국적으로 351명이 감소한 가운데 해남군 역시 전년 대비 2명이 감소한 총 10명이 보건기관에 배치됐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한정된 의대 정원 내에서 여학생과 군필자 비율 증가와 함께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대비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3년으로 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1회 의과 순회진료를 유지하고,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한의과 순회진료를 4개소 추가 확대해 운영한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